

군산시, 추가 호우 피해 방지 사력

200mm가 넘는 기록적 장맛비 내려... 호우피해 복구·추가피해 방지 위해 전 행정력 집중

지난 10일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 전북 군산에는 200mm가 넘는 기록적인 장맛비가 쏟아졌다.

특히 1시간 강수량 기준으로 군산시는 기상관측 사상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다. 어청도의 시간당 강우량은 기상관측 이래로 가장 많은 146mm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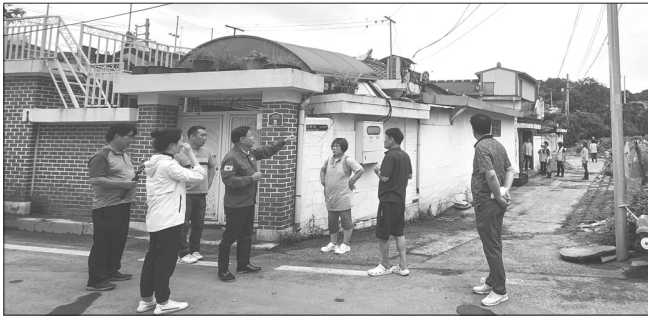
기상청에 의하면 우리나라 북쪽에 기압능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 기압능이 예상보다 강하게 건조공기를 내려 보내면서 비구름대 북상이 저지됐고, 이로 인해 대량 유입된 수증기가 전북과 충청 지역에서 응축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집중호우의 원인이 되었다고 분석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100여 건의 피해 속에서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2년 8월 기록적인 침수피해를 경험했던 쓰러진 과거로 인한 사전대비와 신속한 대처 때문이었다.

실제로 군산시는 작년에도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약 50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 및 주택, 축사 등이 침수되고 토사가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인명피해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6월부터 배수로를 정비하고 빗물받이 주변의 낙엽과 나뭇가지 등을 청소하는 등 폭우 대비 작업을 했고, 상습 침수지역은 '대형' 빗물받이로 교체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조치한 덕택이었다.

올해 역시 군산시는 장마철을 앞두고 김임준 시장을 선두로 철저한 사전



10일 김임준 군산시장은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시민들을 위로하며 철저한 복구를 당부했다.

준비와 안전 점검에 힘써왔다.

지난 6월 14일 군산시 부시장을 비롯한 재난 관련 17개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회의가 열려 부서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풍수해 대비 종합계획도 수립해 즉각 실행에 옮겼다.

인명피해 우려 지역 62개소와 상습 침수 주요 교차로에는 책임자를 지정해 재난 예방 책임감을 높였다. 급경사지 117개소, 산사태취약지역 42개소를 포함한 우기 대비 취약지역을 안전 점검했고 취약시설물 점검까지 끝마쳤다.

김임준 군산시장 역시 장마에 대비해 주요 재난대비 시설인 경포천 배수펌프장과 경포배수갑문의 작동상태 그리고 유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 관련 현황청취 및 점검을 직접 실시할 정도로 신경을 써왔다.

어항, 배수펌프장, 우수저류조, 우수

지, 예·경보 시스템 점검 및 하수관로 준설과 노후 관로 개·보수도 완료했다. 그럼에도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던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군산시청은 비통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10일 비가 그친 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김임준 군산시장은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시민들을 위로하며 철저한 복구를 당부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피해 신고가 지속해서 들어오고 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다. 그러나 피해 현황 파악을 신속하게 하고 복구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피해 시민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호우 피해조사·복구 작업 '속도낸다'

호우피해 추가 사례... 각 읍면동에 20일까지 접수

익산시가 기록적 폭우로 발생한 피해를 적기에 회복하고자 행정력은 물론 지역의 인력자원을 총동원해 피해 상황 집계와 긴급 복구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익산시는 쏟아진 비를 감당치 못해 붕괴된 산복천 상류의 제방을 정비하고, 침수 피해를 입은 상가와 주택, 농장 등 익산의 수해 지역 곳곳에 대한 긴급 보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8일부터 시에 접수된 주요 피해 사항은 공공시설 85건, 사유시설 48건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의 경우 도로 침수가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수불량 14건, 맨홀 역류 13건, 제방 유실 4건 등이다. 사유시설은 망성면과 용동면 등 북부

권역을 중심으로 비닐하우스 150ha가 침수됐고, 축사 2개소와 공장 3개소, 주택·상가 41곳이 침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전날 오전 금강지류인 산복천 상류에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리자 빨라진 유속을 견디지 못해 둑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이로 인해 인근 논으로 흙탕물이 대거 발발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시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곧바로 굴착기 2대와 15톤 화물차 7대 등 관련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고, 철야 작업까지 불사하며 1톤짜리 포대 자투(텐트)를 쌓아 물길을 막는 임시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도로 위로 쓰러진 나무를 제거하고, 심하게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



는 등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 안전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시는 아직 접수되지 않은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각 읍면동으로 분청 직원들을 파견해 피해조사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피해지역에 복구 인력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

'다이로움 취업박람회' 역할 특독

익산시, 올해 상반기 취업박람회 통해 72명 취업 성공 오는 16일 박람회 개최... 오리온·하림 등 10개 기업 참여

익산시 '다이로움 취업박람회'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0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진행된 취업박람회에는 63개 기업·기관과 800여 명의 구직자가 참여했으며 72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익산시는 지역 청년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 고용창출을 돕고자 지난해부터 매월 세 번째 화요일 익산 청년시청에서 다이로움 취업박람회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들과 민간의 자리를 마련해 채용 면접을 진행하고 구직 동기부여와 진로설정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총주시 김선태 주무관 취업특강을 진행해 청년들에게 도전의 메시지를 전했고, 6월에는 최근 의료·보건계 상황으로 취업에 대한 위기가 깊어지는 지역 의료·보건 전공 대학생과 청년들을 위한 채용설명회 및

멘토링을 진행한 바 있다.

다이로움 취업박람회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인구의 지역 정착을 돕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입소문을 타고 다른 지자체 청년들의 박람회 참여로 이어져 인구 유입의 가능성도 높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고용은 경제활동의 시작이자 결과물이고 일자리는 복지의 핵심이다"며 "기업의 인력난 문제와 지역청년의 취업문제, 시민들의 일자리 고민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7월 다이로움 취업박람회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익산 청년시청에서 다양한 직군의 인재 채용을 목표로 개최될 예정이다. (주)오리온, 삼양식품(주), (주)하림산업, 주식회사 마더스제약 등 10개 주요 지역 기업이 참여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수해복구 현장에 인력지원 나서

군산시 직원·자원봉사자 등

지난 10일 군산 지역에 15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농경지 침수와 시설물 파손 등 각종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군산시는 폭우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해 비상 3단계를 발령하고, 전 직원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특히 최대한 빠른시간에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군산시는 10일 오전 5시부터 49개 관과 456명의 직원을 27개 읍면동에 투입했다. 직원들은 빗물받이·하수구 점검 527건, 기

또한 지난 8일부터 계속된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관내 농경지와 양돈단지 등 20개소에는 11일 9시부터 시 직원 194명, 자원봉사자 50명이 피해 현장에 투입되어 재해복구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인력이 배치된 곳은 장비 투입이 어려워 인력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산사태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 지역인 옥산면, 서수면, 신흥동, 내운1동 등에 우선적으로 배치되었다.

현장에 투입된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은 먼저 주택과 도로, 농경지로 흘러 내린 토사를 제거하는 등 물이 범람해 침수된 주택과 시설물을 집중적으로 정비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55억 추가 공급

익산시가 '희망터드립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가로 개시하며 올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총 99억 원 상당의 자금을 공급하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익산시의 NH농협은행, 전북은행, 국민은행, 전북신용보증재단이 함께 참여한다.

이번에 개시하는 '익산시 희망터드립 특례보증 대출지원'은 추경 예산을 편성해 55억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업력 3개월 이상의 익산시 내 사업장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이 585점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한도 이내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2일부터 전북신용보증재단 익산지점으로 방문해 상담하면 된다. 최종 보증금액은 재단의 심사 후 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청 누리집 소상공인 지원사업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전북신용보증재단 익산지점(063-838-9374~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스마트도시계획 리빙랩 시민참여단 발대식

11일, 군산시청 상형실에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리빙랩 시민참여단 발대식이 개최됐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시민참여단에 대한 위촉장 수여, 스마트도시계획 사업 소개 및 시민참여단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이번 참여단은 군산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시민 44명으로 구성되어 활동에 나섰다.

발대식이 마무리 된 뒤 활동방법 교육이 이어졌고, 이후에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시민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의견을 모으는 시간이 마련됐다.

군산시는 시민참여단의 출발을 목표로 한 시민참여형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첫 걸음으로 평가했다.

또한 참여단 활동을 통해 군산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에 시민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모델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시민참여단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8월까지 총 3회의 워크숍을 통해 군산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아이디어 및 의견 등 제시, 모니터링 등 여러 활동을 본격 수행해나갈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보건소,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익산시 보건소는 하반기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자를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모집한다.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과정 프로그램으로 △경년기 한방으로 날라리 △한방으로 관절 튼튼 교실 △한방으로 몸과마음 청춘교실 등을 진행한다.

접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보건소 2층 한방진단실에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방진단실(063-859-4936)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